

복식문화사

영상매체를 통해 본 한국복식사

5강. 개화기, 일제강점기

6강. 근대, 현대, 미래

교재: 우리 옷 이천년, 류희경 외, 미술문화, 2011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복식

남자복식				
관복				
명칭	유물 또는 벽화	영상매체	특징	
두루마기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닥터진 시대: 186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2012년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1860년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의사로서 고군분투하게 되는 내용의 의학드라마 영화 속 역할: 출처: http://m.blog.naver.com/hanbokgood/220233932657</p>	
조끼				

<p>마고자</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경성스캔들 시대: 193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근대적인 윤리관 속에 서구문물이 유입되던 1930년 경성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과 모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영화 속 역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kEs2XJFqP8</p>
------------	---	--	--

두식

	<p>흑립</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공주의 남자 시대: 조선 줄거리 또는 배경: 정치적 숙적이었던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두 자녀 이세령과 김승유의 사랑이야기 영화 속 역할: 김종서의 아들 김승유 출처: http://www.kbs.co.kr/drama/princess/about/plan/index.html</p>
	<p>파나마모자</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경성스캔들 시대: 193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근대적인 윤리관 속에 서구문물이 유입되던 1930년 경성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과 모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영화 속 역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duGm4kOMAM</p>
<p>맥고</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경성스캔들 시대: 1930년대</p>

모자			<p>줄거리 또는 배경: 근대적인 윤리관 속에 서구문물이 유입되던 1930년 경성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과 모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p> <p>영화 속 역할: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yduGm4kOMAM</p>
중절모자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야인시대 시대: 1960년대</p> <p>줄거리 또는 배경: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대하드라마</p> <p>영화 속 역할: 김두한역할(박상민)</p> <p>출처: http://blog.naver.com/highcoex/220212215136</p>
보병부령상복			<p>이 유물은 1897년부터 육군이 착용한 정복으로 자주의식을 부각시킨 옷이다. 옷감의 기본재질은 흑색용으로써 스탠드칼라 깃은 높이가 4cm, 흑색실로 둥글게 말아서 끈 끈으로 무궁화형 매듭 단추를 만들어 가슴에 5개를 부착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떨어져 유실 되었다. 흑색소매에는 `人`자형 유장(袖章)이 5줄 부착되어 있고 견장(肩章)은 미부착되어 있는 상태이나 화살표시(箭)의 부령(副領) 상복(常服)임을 알수 있다.</p> <p>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56956&cid=51293&categoryId=51293</p>
군의부위			<p>유물번호 고대군사재(고대군사재) 041004-000</p> <p>서양식 군복으로의 개혁은 1895년(고종32년) 4월 9일 칙령 제78호가 반포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 예복은 1900년 육군 장졸복장 규칙이 개정되면서 1907년까지</p>

예복			<p>지 착용된 신식군대의 군복이다. 옷감의 기본 재질은 흑색용이며 의령장, 수장, 견장 등의 부착물에 의해서 관등을 표시하였다. 소매 밑 부분은 병과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고, 바지에는 장관·영관·위관·하사관·병졸에 따라서 띠의 폭이나 색상을 다르게 하였다. 이 예복은 소매 끝의 색상, 수장의 표시, 견장, 의령장 등으로 보아 군의부위 예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7개의 더블 단추가 달려 있고 깃과 소매에 녹색용을 덧댔으며, 앞여밈은 바이어스로 처리했고 식대는 붉은색이다.</p> <p>[네이버 지식백과] 군의부위예복 (e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p> <p>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56945&cid=51293&categoryId=51293</p>
구군복과 신식군복		 	<p>조선시대 무관들이 입던 군복.</p> <p>[네이버 지식백과] 구군복 [具軍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p> <p>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4662&cid=46671&categoryId=46671</p> <p>신식군복</p> <p>출처: http://blog.daum.net/hsykms/732</p>

남학생 복식

<p>남자 국민복</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야인시대 시대: 196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대하드라마 영화 속 역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dV9PCUdPIFE</p>
<p>1930년 대 양복 교복</p>			<p>출처 : http://www.thehansom.com/home/shop/item.php?it_id=1365392177</p>

<p>1940년 대 교복</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tvN 새 월화 미니시리즈 '빠스껏 볼'에서 시대: 194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격랑의 1940년(1939~1948년) 한반도를 배경으로 어두운 일제 치하를 '농구'란 희망을 등불 삼아 건너온 것처럼, 다가올 '분단'이라는 비극을 '농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강산과 친구들의 이야기 출처: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31&newsid=01161126602972920&DCD=A10102</p>
-----------------------	---	--	--

여자 복식			
명칭	유물 또는 벽화	영상매체	
예복			

<p>평상복</p>	<p>저고리</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경성스캔들 시대: 193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근대적인 윤리관 속에 서구문물이 유입되던 1930년 경성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과 모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영화 속 역할: 나여경 역(한지민) 출처: http://blog.naver.com/fnfkdllwm56/220249631784</p>
<p>배자</p>	<p>배자</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시대: 줄거리 또는 배경: 영화 속 역할: 출처 http://cfile222.uf.daum.net/image/19459B0E4C32BB7F37FCC4</p>
<p>마고자</p>	<p>마고자</p>		<p>소장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유물번호 의(의) 000388-000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47402&cid=51293&categoryId=51293</p>	

			
<p>두루마기</p>			<p>소장처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유물번호 의(의) 001322-000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83008&cid=51293&categoryId=51293</p>
<p>두식</p>			
<p>머리 모양, 머리 장식품</p>			<p>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D%99%9C%EB%9E%80</p>

<p>관모</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시대: 줄거리 또는 배경: 영화 속 역할: 출처: http://www.bettlhanbok.com/archives/tag/%EB%A7%88%EA%B3%A0%EC%9E%90</p>
<p>박쥐 우산을 쓴 여인</p>			<p>자료명칭 박쥐우산을 쓴 여인(재현품) 사업명 한복의 세계화 이미지 특별전(1998) 상세설명 『한복의 세계화 이미지』, 국립민속박물관 편, 국립민속박물관, 1998. p.19 출처: http://archive.nfm.go.kr/Search/dq_search_detail.jsp?contents=search_recent_NEW.jsp&reqDataNM=00145513&IMGS=http://210.204.213.146:9091/img/thumbFile/146/00145513.jpg&content=direct&mainYn=N</p>

1940년대 복식

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몸빼 차림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아리랑 시대: 194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나운규의 대표작이자 한국 영화사상(史上) 불멸의 명작으로 꼽히는 《아리랑》은, 한마디로 해서 일제에 억눌렸던 한국 민족의 잠재적인 민족애를 표방한 저항 영화로 평가된다. ‘고양이와 개’로 상징되는 프롤로그부터가 속박당한 민족과 속박하는 민족의 대립을 암시하기도 했으며, 특히 주인공 영진을 광인(狂人)으로 설정한 것은, 왜곡된 현실에 대한 철저한 반항심리의 간접적인 표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영화 속 역할: 미치광이 영진 역 출처: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5001</p>
국방색의 밀리터리룩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지원병 시대: 1941년 줄거리 또는 배경: 분옥의 연인인 춘호는 소작관리권을 빼앗겨 생계를 걱정하던 중 조선인도 군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고 군대에 지원한다. 신문의 합격자 명단을 본 악덕한 지주는 마음을 바꿔 춘호의 집안을 돌봐 주기로 결심하고, 춘호는 일장기를 흔드는 인파들의 환송을 받으며 열차에 오른다. 한국청년이 애인의 허락을 받고 지원한다는 내용의 군국주의 어용영화이다. 제목부터 노골적인 친일색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징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영화의 시작과 끝을 일장기가 장식한다. 감독 안석영은 ‘독립의 노래’까지 작사했던 인물이었으나 시대적 상황이라는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영화 속 역할: 최운봉 역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2306</p>
군민복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아리랑 시대: 194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나운규의 대표작이자 한국 영화사상(史上) 불멸의 명작으로 꼽히는 《아리랑》은, 한마디로 해서 일제에 억눌렸던 한국 민족의 잠재적인 민족애를 표방한 저항 영화로 평가된다. ‘고양이와 개’로 상징되는 프롤로그부터가 속박당한 민족과 속박하는 민족의 대립을 암시하기도 했으며, 특히 주인공 영진을 광인(狂人)으로 설정한 것은, 왜곡된 현실에 대한 철저한 반항심리의 간접적인 표현이었</p>

			<p>다고 볼 수도 있다. 영화 속 역할: 미치광이 영진 역 출처: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5001</p>
<p>백의 민족</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어화 시대: 194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가난한 어촌에 도회지 청년 박학이 나타나서 어부 나웅의 동생 박정경을 유혹한다. 나웅이 이를 반대하여 박학을 마을에서 내쫓고 동생 박정경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발굴된 4편의 영화 중 가장 통속적인 주류영화로, 안철영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제목 어화는 '고기잡이 배에 켜놓은 등불'처럼 세상풍파에 휩쓸려 위태롭게 살아온 여자의 인생을 의미한다. 뚜렷한 선악 구도와 진부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어촌의 대비를 이미지로 담아낸 영상과 시각적으로 처리한 시 낭송 장면은 자칫 밋밋할 수도 있는 영화의 흐름을 보완해준다. 옥분의 상경 권유로 고민하던 인순은 철수의 꼬임에 넘어가 서울로 간다. 그러나 직장을 구해 주겠다고 철수에게 순결을 잃은 그녀는 기생이 되고, 연인이었던 천식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상심한다. 결국 인순은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는 슬픈내용이다. 영화 속 역할: 철수 역 출처: http://blog.naver.com/kojh225/10075148770</p>
<p>양복의 마카오시대</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야인시대 시대: 194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대하드라마. 영화 속 역할: 김두한 외 13인 출처: http://blog.naver.com/idea5khj/220266922424</p>



1950년대 복식

구분	사진	영상매체	특징
낙하산지 블라우스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그대와 영원히 시대: 194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보험회사 사원인 그는 2남3녀의 아버지이다. 보험회사에 감원 선포가 인다. 그는 건실한 사원이었지만 나이가 많은 탓으로 부득이 감원 대상에 들어 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실망할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는 차마 자신이 실직하였음을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모르는 척 아버지를 위로한다. 그렇게 한가족이 합심하는 사이에 경사가 잇달는다. 특히 깨질 뻔했던 둘째 딸의 혼사가 성립된 것은 가정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어느덧 가정에 핀 웃음꽃이 소담스러운 영화이다.</p> <p>영화 속 역할: 애란 역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9922</p>

<p>플레이 스커트</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국제시장 시대: 1950년 ~ 현재 줄거리 또는 배경: 덕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장남 덕수, 둘째 진규, 셋째 막순, 막내 끝순으로 1950년 중종군의 침입으로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려고 배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덕수가 셋째인 막순의 손을 놓치며 혼자 배에 오른다. 나머지 가족들은 배에 있고, 아버지가 막순을 찾아오겠다며 내려갔는데 찾는 도중 배는 출발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부산에 도착하여 아버지와 의 약속대로 고모의 가게인 꽃분이네를 찾아가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아버지와 의 약속, 장남이자 가장이 돼버린 덕수는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정작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살지 못하고 오직 가족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영화이다. 영화 속 역할: 덕수고모 역 출처: http://blog.naver.com/idea5khj/220266922424</p>
<p>벨벳 치마 유행</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오발탄 시대: 194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정신이상(精神異常)이 생긴 어머니는 단말마(斷末魔)적으로 '가자! 가자!'를 외치고, 영양 실조에 걸린 만삭의 아내와 상이군인인 동생(최무룡), 그리고 양공주가 된 여동생……또한 고무신을 사달라고 매일같이 성화를 부리는 자식 등, 이렇게 처자 권속을 거느린 채 박봉으로 살아가는 계리사(김진규)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치통으로 고생하면서도 그것 하나 고칠 심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몸이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동생은 은행을 털다가 들키고, 여동생마저 오빠의 가슴에 못질을 한다.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를 손에 든 김진규는, 우선 앓던 이부터 뽑는다. 그리고 딸에게 줄 고무신 한 켤레를 산다. 남은 돈으로 술을 마셨다. 잔뜩 취한 그는 택시에 올라탄다. "어디로 모실까요?"라는 택시운전사의 물음에 대해 김진규는, "마음대로 가라"고 지시한다. 이미,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영화이다. 영화 속 역할: 미리 역 출처: http://cafe.naver.com/space293/161</p>
<p>차이니즈 드레스</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맨발의 청춘 시대: 1964년</p>

<p>유행</p>			<p>줄거리 또는 배경: 서두수는 길거리의 삶을 사는 폭력배이다. 밀수한 시계를 운반 하러 가던 어느날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요안나와 친구를 구해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요안나와 두수는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요안나의 학교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두수는 집으로 찾아온 요안나와 만나기 시작한다.</p> <p>요안나는 대사의 따로 부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두수는 창녀들이 사는 허름한 방에서 산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서로가 속한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두수는 요안나를 레슬링 경기장으로 요안나는 두수를 오케스트라 연주장으로 데리고 간다. 두수는 요안나가 읽는다는 성경을 읽고 운명교향곡을 들으며 주스를 마신다. 요안나는 위스키를 마셔보고 권투잡지를 읽어보고 아령을 들어본다.</p> <p>두수가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사기로 두수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하고 요안나는 소식을 궁금해하며 대관령에서 편지를 보낸다. 두수가 출소하고 그들은 다시 만나지만 이들의 관계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두수의 취직을 알선하려는 자리에서 모욕을 당한 두수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 하고 밀수건의 해결을 위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기로 한다. 요안나는 아버지가 계신 태국으로 가게되자 두수를 찾아 가출하고 둘은 경찰과 조직의 눈을 피해 시골로 도망치게 된다. 거기서 하룻밤 동안 둘만의 행복을 맛 본 그들은 동반자살하고 만다.</p> <p>영화 속 역할: 이민자 출처: http://blog.naver.com/ego15/90102326246</p>
<p>한국 최초의 노라노 패션쇼</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노라노 시대: 1950년대</p> <p>줄거리 또는 배경: “자기 자신을 찾아 집을 뛰쳐나온 ‘노라’처럼, 나는 노명자가 아닌 노라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p> <p>85세의 패션디자이너 노라노는 오늘도 변함없이 옷을 만들고 있다. 그녀는 1956년에 한국 최초로 패션쇼를 개최하고, 윤복희의 미니스커트와 펄시스터즈의 판탈롱을 스타일링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노라노는 1963년에 최초로 디자이너 기성복을 생산하기도 했다.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멋진 옷을 만들어,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선 많은 여성들을 응원하고 싶었다.</p> <p>60여년을 넘게 여성을 위해 옷을 만들어온 그녀는 지금,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젊</p>

			<p>은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자신의 패션사를 정리하는 전시회를 준비한다. 옛 의상을 복원하고, 옷과 함께 흘러온 자신의 인생과 그 시대를 다시 무대에 올린다.</p> <p>영화 속 역할: 모델 역</p> <p>출처: http://blog.daum.net/beijingslowwalk/16154799</p>
<p>헵번스타일 머리 모양</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청춘쌍곡선</p> <p>시대: 1940년대</p> <p>줄거리 또는 배경: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황해 분)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양훈 분)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모두 아파서 병원에 오는데... 의사(박시춘 분)는 한 사람은 너무 못 먹어서, 한 사람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환경을 바꿔서 생활해볼 것을 권한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의사의 말에 따른다. 처음에는 서로 내키지 않고 불편해 하지만 점차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각자 서로의 여동생(이빈화, 지학자 분)을 사랑하게 되는데.</p> <p>가난한 집 아들 명호는 동창이자 부잣집 아들인 부남을 만난다. 명호는 너무 먹지를 못해서, 부남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난 상태이다. 의사는 두 사람에게 2주간 바꿔 생활하기를 권유한다. 미국 스크루볼 코미디의 계급적인 이야기를 변형하였고 당대 최고의 희극배우들이 뮤지컬을 선보이는 장면도 압권이다.</p> <p>영화 속 역할: 이빈화 역</p> <p>출처: http://blog.naver.com/amca4300?Redirect=Log&logNo=220370409455</p>
<p>썩 드레스와 점퍼스커트</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로맨스 빠빠</p> <p>시대: 1960년</p> <p>줄거리 또는 배경: 보험회사의 건실한 사원인 그(김승호)는 아내(주중녀)와 자녀들에게 '로맨스 빠빠'라고 불리는 모범가장이다. 장녀 음전(최은희)은 대학 졸업 후 관상대에 다니는 우택(김진규)과 결혼하고 장남 어진(남궁원)은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촬영 현장에서 일한다. 차녀 곱단(도금봉)은 여대생이고, 차남 바른이(신성일)와 막내 이쁜이(엄앵란)는 고교생들이다. 대식구의 생활을 꾸리기에 월급이 빠듯하지만 낙천적인 그는 항상 넉넉한 웃음으로 가족들을 감싸 안는다. 그러나 감원 대상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가족들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밖으로 나돌게 된다. 아들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 아버지를 위로하며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p> <p>영화 속 역할: 장녀 음전 역</p> <p>출처: http://blog.naver.com/amca4300?Redirect=Log&logNo=220370409455</p>

1960년대 복식

구분	사진	영상매체	특징
<p>60년대 유행한 부풀린 머리스타일</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맨발의 청춘 시대: 1964년</p> <p>줄거리 또는 배경: 서두수는 길거리의 삶을 사는 폭력배이다. 밀수한 시계를 운반 하러 가던 어느날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요안나와 친구를 구해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요안나와 두수는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요안나의 학교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두수는 집으로 찾아온 요안나와 만나기 시작한다.</p> <p>요안나는 대사의 따로 부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두수는 창녀들이 사는 허름한 방에서 산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서로가 속한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두수는 요안나를 레슬링 경기장으로 요안나는 두수를 오케스트라 연주장으로 데리고 간다. 두수는 요안나가 읽는다는 성경을 읽고 운명교향곡을 들으며 주스를 마신다. 요안나는 위스키를 마셔보고 권투잡지를 읽어보고 아령을 들어본다.</p> <p>두수가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사기로 두수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하고 요안나는 소식을 궁금해하며 대관령에서 편지를 보낸다. 두수가 출소하고 그들은 다시 만나지만 이들의 관계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두수의 취직을 알선하려는 자리에서 모욕을 당한 두수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 하고 밀수건의 해결을 위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기로 한다. 요안나는 아버지가 계신 태국으로 가게되자 두수를 찾아 가출하고 둘은 경찰과 조직의 눈을 피해 시골로 도망치게 된다. 거기서 하룻밤 동안 둘만의 행복을 맛 본 그들은 동반자살하고 만다.</p> <p>영화 속 역할: 요안나 역 출처: http://blog.naver.com/ego15/90102326246</p>
<p>의복 간소화 운동에 따른</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맨발의 청춘 시대: 1964년</p> <p>줄거리 또는 배경: 서두수는 길거리의 삶을 사는 폭력배이다. 밀수한 시계를 운반 하러 가던 어느날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요안나와 친구를 구해준다. 이것이</p>

<p>짧은 치마와 재건복</p>			<p>인연이 되어 요안나와 두수는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요안나의 학교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두수는 집으로 찾아온 요안나와 만나기 시작한다.</p> <p>요안나는 대사의 따로 부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두수는 창녀들이 사는 허름한 방에서 산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서로가 속한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두수는 요안나를 레슬링 경기장으로 요안나는 두수를 오케스트라 연주장으로 데리고 간다. 두수는 요안나가 읽는다는 성경을 읽고 운명교향곡을 들으며 쥬스를 마신다. 요안나는 위스키를 마셔보고 권투잡지를 읽어보고 아령을 들어본다.</p> <p>두수가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사기로 두수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하고 요안나는 소식을 궁금해하며 대관령에서 편지를 보낸다. 두수가 출소하고 그들은 다시 만나지만 이들의 관계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두수의 취직을 알선하려는 자리에서 모욕을 당한 두수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 하고 밀수건의 해결을 위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기로 한다. 요안나는 아버지가 계신 태국으로 가게되자 두수를 찾아 가출하고 둘은 경찰과 조직의 눈을 피해 시골로 도망치게 된다. 거기서 하룻밤 동안 둘만의 행복을 맛 본 그들은 동반자살하고 만다.</p> <p>영화 속 역할: 서두수, 요안나 역 출처: http://blog.naver.com/ego15/90102326246</p>
<p>미니스커트 , 핫팬츠의 신선한 충격</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노라노 시대: 1940년대 줄거리 또는 배경: “자기 자신을 찾아 집을 뛰쳐나온 ‘노라’처럼, 나는 노명자가 아닌 노라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p> <p>85세의 패션디자이너 노라노는 오늘도 변함없이 옷을 만들고 있다. 그녀는 1956년에 한국 최초로 패션쇼를 개최하고, 윤복희의 미니스커트와 펠시스터즈의 판탈롱을 스타일링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노라노는 1963년에 최초로 디자이너 기성복을 생산하기도 했다.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멋진 옷을 만들어,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선 많은 여성들을 응원하고 싶었다.</p> <p>60여년을 넘게 여성을 위해 옷을 만들어온 그녀는 지금,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젊은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자신의 패션사를 정리하는 전시회를 준비한다. 옛 의상을 복원하고, 옷과 함께 흘러온 자신의 인생과 그 시대를 다시 무대에 올린다.</p> <p>영화 속 역할: 모델 역</p>

1970년대 복식

명칭	사진	영상매체	내용
저지 판탈롱 팬츠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패션 70's 시대: 1970년대</p> <p>줄거리 또는 배경: 우리나라 정치외교, 패션의 흐름, 역사철학 시대의 센세이셔널을 창조하는 4명의 젊은이들의 불꽃같은 삶을 통해 시대를 재조명한 드라마.</p> <p>영화 속 역할: 장빈 역</p> <p>출처: http://blog.naver.com/dcalli999/60014185533</p>
진 기성복모드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썬시봉 시대: 1970년대</p> <p>줄거리 또는 배경: 한국 음악계에 포크 열풍을 일으킨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등을 배출한 음악감상실 '썬시봉', 젊음의 거리 무교동 최고의 핫플레이스였던 그곳에서 '마성의 미성' 윤형주와 '타고난 음악천재' 송창식이 평생의 라이벌로 처음 만나게 된다. '썬시봉' 사장은 이들의 가수 데뷔를 위해 트리오 팀 구성을 제안하고, 자칭 '썬시봉'의 전속 프로듀서 이장희는 우연히 오근태의 중저음 목소리를 듣고 그가 두 사람의 빈틈을 채워줄 '숨은 원석'임을 직감한다. 기타 코드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통영 촌놈 오근태는 이장희의 꼬임에 얼떨결에 '트리오 썬시봉'의 멤버로 합류하게 되고 그 시절,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썬시봉'의 뮤즈 민자영에게 첫눈에 반해 그녀를 위해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하는데....</p>

			<p>그 시절, 젊음의 거리 무교동을 주름잡던 음악감상실 ‘쨌시봉’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명의 뮤즈 그리고 잊지 못할 가슴 시린 첫사랑의 기억을 하는 영화이다. 영화 속 역할: 젊은 민자영 외 3인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119966&imageNid=6441525</p>
<p>통이 넓은 판탈롱 팬츠, 핫팬츠, 저지 옷감</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여자들만 사는 거리 시대: 1976년 줄거리 또는 배경: 술집 아가씨, 근옥(21)은 조실부모하여 고아원에서 자라났다. 술집에서 일을 하고있던 어느날 주인 아들의 학교 담임선생 조용준(25)이 가정방문을 온다. 근옥은 그에게서 옛추억을 더듬는 풋풋한 정감을 느끼게 되고 일방적인 구애작전을 펴기 시작한다. 용준도 근옥이 싫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자신의 입장, 교육자로서의 위치등으로 근옥을 멀리한다. 그러나 끈질기고 기발한 근옥의 여러가지 프로포즈 앞에 용준은 학교에 사표까지 내고 그녀를 정상적인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그러던 어느날 호텔로 향하는 근옥을 의심하여 쫓아가보니 그녀는 인생을 맘껏 일하여 살겠다는 각오로 호텔의 청소부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야 보통여자가 된 그녀를 포용하는 용준은 벅찬 기쁨을 느끼며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며 시작되는 영화이다. 영화 속 역할: 근옥 역 출처: http://blog.naver.com/jantree/220002718535</p>
<p>판탈롱 팬츠와 점퍼 슈트</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세노야 세노야 시대: 1973년 줄거리 또는 배경: 부배를 처음 만나 대학축제에 초대받고 유리는 부배에 대한 사랑이 싹튼다. 그러나 사랑을 나누며 오토바이를 타다가 충돌사고로 유리는 병실속의 환자가 된다. 이미 집을 나온 유리는 입원비 마련이 암담하다. 수술을 해야하는 유리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부배는 소매치기를 하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 수술을 앞둔 유리의 성화로 잠시 출소한 부배는 유리를 위로하고 돌아간다. 부배가 출감하던날 유리는 병원에서 갖는 공개 방송무대에서 결혼하자고 하고 부배는 결혼예물을 사기 위해 오토바이를 팔러간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사겠다는 헤란을 믿고 따라간 부배는 오토바이족들에게 봉변을 당하고도 유리에게 가다가 교통사고</p>

			<p>로 끝내 유리를 볼 수 없게 된다. 결혼예물은 혜란의 손으로 전해진다. 식어가는 유리의 생명 앞에.</p> <p>영화 속 역할: 부배, 유리 역</p> <p>출처: http://blog.naver.com/dlqudduf00/220023222706</p>
<p>저지 그래픽 드레스</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패션 70's</p> <p>시대: 1970년대</p> <p>줄거리 또는 배경: 우리나라 정치외교, 패션의 흐름, 역사철학 시대의 센세이셔널을 창조하는 4명의 젊은이들의 불꽃같은 삶을 통해 시대를 재조명한 드라마</p> <p>영화 속 역할: 고준희 역</p> <p>출처: http://blog.naver.com/dcalli999/60014185533</p>
<p>조끼의 유행</p>			<p>영화 또는 드라마 제목: 국제시장</p> <p>시대: 1950년 ~ 현재</p> <p>줄거리 또는 배경: 덕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장남 덕수, 둘째 진규, 셋째 막순, 막내 끝순으로 1950년 중종군의 침입으로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려고 배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덕수가 셋째인 막순의 손을 놓치며 혼자 배에 오른다. 나머지 가족들은 배에 있고, 아버지가 막순을 찾아오겠다고 내려갔는데 찾는 도중 배는 출발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부산에 도착하여 아버지와 의 약속대로 고모의 가게인 꽃분이네를 찾아가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아버지와 의 약속. 장남이자 가장이 돼버린 덕수는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정작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살지 못하고 오직 가족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영화이다.</p> <p>영화 속 역할: 어린 달구 역</p> <p>출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0619614</p>

1980년대 패션

명칭	사진	영상매체	내용
블루진의 유행			<p>영화: 써니</p> <p>1980년대 배경으로 어린 시절부터 중년이 된 현재 시기까지 이어지는 주인공들의 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p> <p>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들고 노래한 포크 가수와 영화 속 멋진 배우들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은 너도 나도 진을 입어서 이로 인해 중소 봉제업체들이 진바지 생산에 뛰어들고, 동.남대문 시장이 거대한 의류 상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가장 많은 유행이 거쳐간 시기였다.</p> <p>출처:http://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57884</p>
스포츠 웨어의 일상화			<p>활동성에 비중을 둔 패션이라 현재와 별반 차이 없다.</p>

<p>레이어드 룩</p>			<p>층이 진 모양이란 뜻으로, 여러 겹을 겹쳐 입은 <u>스타일</u>을 말한다. 여러 단을 연결한 것도 레이어드 룩이라고 한다</p> <p>[네이버 지식백과] <u>레이어드 룩</u> [layered look]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8.25, 한국사전연구사)</p>
<p>디스코바지</p>			<p>드라마 : 보스를 지켜라</p> <p>취업준비생 최강희는 후줄근한 회색 면 티셔츠에 철지난 디스코바지. 커다란 백팩을 옆에 메고, 커다란 빨테 안경을 쓴 모습이다.</p> <p>출처 :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311044756180329003</p>

앤드로지너
스 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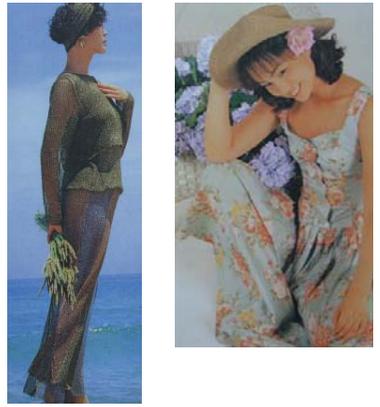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남성 복식의 이미지를 수용함으로써 좀 더 남성적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측면으로 인식되어 왔다.

유니섹스
모드의
유행



티셔츠와 진바지가 일반적인 옷차림, 굽은 웨이브의 장발이 유행하면서 남녀 구분 모호

<p>캐주얼 감각의 남성복</p>			<p>출처 : 1990년 타운젠트 광고 가장 변화가 없었던 것은 남성복이다.</p>
<p>환경문제 대두와 에콜러지 룩</p>			<p>자연과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에콜로지 룩이 1990년대 대표적인 테마로 등장하였다. 스타일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강조하여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헐렁한 실루엣으로 박스형이나 롤 드레스 스타일이 주를 이룬다.</p>
<p>여피족</p>			<p>'여피(YUPPIE)'란 젊은(young), 도시화(urban), 전문직(professional)의 세 머리 글자를 딴 'YUP'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20, 30대의 젊은 사람으로서 대도시에 살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p> <p>여피족은 베이비붐으로 태어나 가난을 모르고 자란 뒤,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 근교에 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여 높은 수입을 보장받고 있는 젊은이들이기에, 이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 가치관 등에는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물론, 같은 세대에 속한 다른 젊은이들의 그것과도 크게 다른 데가 있습니다.</p> <p>우선 이들은 개인의 취향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매사에 성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또 모든 행동거지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으며, 대인관계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세련된 인간관계를 추구합니다</p> <p>[출처] 여피족 작성자 해피투미</p>

1990년대 패션

명칭	사진	영상매체	내용
1990년대 패션			<p>싸고 다양한 상품을 갖춘 동대문 패션 타운 등의 재래시장의 부활, x세대와 미시족의 출현, 대중 스타들의 패션에 대한 영향력 증가 등은 9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사회, 문화적 변화들로 패션의 흐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p>
패션 경향			<p>90년대의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이시기는 탈유행의 시대로, 다양한 트렌드의 패션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을 보였다.</p>
X세대와 미시족 출현			<p>출처 : 응답하라 1994</p> <p>베이비 춤 세대에 이어 등장한 x세대로 불리는, 이전 세대와 차별화된 신세대와 미혼처럼 살아가는 신세대 주부를 지칭하는 미시족이 대중문화의 키워드로 급부상하면서 그들을 타깃으로 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부상하였다</p> <p>x세대는 다방면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사진에서는 x세대를 다룬 응답하라 1994이다. 일명 대학생 패션도 등장하였는데 전공 책 몇 권을 팔에 끼고 어깨 위에 니트를 걸치거나 바지허리에 셔츠를 매고 이스트 팩 혹은 잔스포츠를 매주면 완성이다.</p> <p>겨울이라면 떡볶이 코트를 겹쳐 입고, 멋쟁이 여학생들의 경우 베레모를 써주면 된다.</p>

<p>서태지 패션</p>			<p>거리의 젊은이들로부터 시작되어 남녀불문하고 1990년대 젊은이들의 패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이들의 힙합패션이 있다.</p> <p>이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입고 나온 밑위가 무릎까지 올 정도로 긴 배기팬츠를 안에 입은 박서쇼츠의 유명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허벅지 고무밴드가 보이도록 내려 입고 거리를 청소한다고 할 정도로 바짓단을 길게 끌고 다녔던 것으로 역시 험령한 상의를 입고 매우 큰 사이즈의 옷을 입는 빅사이즈 스타일을 선호했고 신발 또한 둔탁한 것을 신었다고 한다</p> <p>[출처] 90년대 추억 속으로, '서태지와 아이들' 그때의 패션 구경*_* 작성자 스타일고</p>
<p>힙합패션</p>			<p>험령한 복장과 병거지 모자에 마스크까지. 생소했던 미국의 힙합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p>
<p>힙합 패션의 유행</p>			

<p>스트리트 패션의 활성화</p>			<p>스트리트 패션이란? 많은 패션은 유명 <u>디자이너</u>의 작품 발표에서 생겨났다. 이것과 달리 일부 젊은층에서 일시적 <u>유행</u>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의 트렌드가 패션의 중심이 될 경우도 있다. 흔히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행 패션 <u>스타일</u>을 말한다. 이를 <u>하이 패션</u>이나 <u>톱 패션</u>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u>스트리트 패션</u> [street fashion]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8.25, 한국사전연구소)</p>
<p>재래 의류 시장의 부활</p>			<p>98년 동대문에 백화점형 상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재래 의류 시장 부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동대문 패션 타운이라는 신소비 시장의 형태를 이루면서 국제적 패션 관광 명소화 되어 국내외의 엄청난 수의 패션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국제적인 패션쇼나 유명 국내 브랜드 의류를 재빨리 벤치마킹해 비슷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p>
<p>해외 유명 브랜드의 수입</p>			<p>유통시장 개방 조치 이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베네통, 라코스테, 피에르 가르댕 등 유명브랜드의 수입, 해외 브랜드의 수입이 호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p>
<p>SFAA Collection</p>			<p>SFAA 컬렉션 소개 ○...여성 전문채널 동아TV는 지난달 22~25일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관 에어돔에서 열렸던 「97...봄·여름 SFAA 정기 컬렉션」 실황을 녹화, 16일 ~ 97년1월3일 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에 방송한다. 이 패션쇼에서는 지춘희 설윤형 배용 박완수 장관효 등 총 15명의 정상급 디자이너의 작품이 소개된다. 1996년 12월 12일에 나왔던 신문의 한 부분의 내용이다. 출처: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2120009912</p>

			9027&ed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6-12-12&officeId=00009&pageNo=29&printNo=9625&publishType=00010
<p>이영희의 파리 컬렉션 진출</p>			<p>1983년 7월 워싱턴 첫 해외 쇼를 시작으로 1993년 파리무대는 한복의 세계화 가능성을 알리는 중요한 무대였고, 전통 한복의 현대적 변화를 시도한 모던한복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이는 날이었다. 출처 : www.leeyounghee.co.kr 한복 디자이너, 프로필, 파리컬렉션, 패션쇼 및 작품 갤러리, 보도자료 수록</p>
<p>배꼽티와 초미니 핫팬츠</p>			<p>1995년 5월 17일 동아일보 신문 '준배꼽티 + 핫팬츠... 속치마 같은 드레스 이색패션 거리누빈다' 출처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51700209121003&officeId=00020&publishDate=1995-05-17&isPopular=0</p>

<p>스쿨걸 룩</p>			<p>여학생복을 응용한 스타일로서 여학생처럼 청결하고 가련한 스타일을 가리킨다. 브리티시 룩(british look)이 응용된 프레피 룩, 베이비돌 룩(baby doll look), 세일러복 등이 디자인의 원천으로 응용된다. 레이스나 턱으로 꾸민 흰 블라우스에 단추나 보타이를 매고 베스트나 카디건을 조화시켜 로맨틱하면서도 학생다운 발랄한 이미지의 멋을 곁들인다.</p> <p>스커트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체크무늬로 만든 플리츠스커트나 플레어스커트 등을 착용하며 상쾌한 색을 주로 사용한다. 여기에 무릎까지 오는 니 삭스(knee socks)와 베이비돌 슈즈(baby doll shoes), 넥타이를 조화시킨다. 1960년대에는 미니스커트의 변형으로서 유행하였고 1977년경에는 회고풍으로 유행하였다. 1994~1995년 유행한 스쿨걸룩은 칼라가 넓은 복고풍 블라우스에 이중 여밈 재킷과 체크 또는 스트라이프 소재를 사용한 박스 형태의 미니 원피스였다</p> <p>[네이버 지식백과] 스쿨걸룩 [school girl look] (두산백과)</p>
<p>아방가르드 룩</p>			<p>아방가르드는 기성의 예술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예술 운동이다.</p> <p>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일어난 다다이즘, 입체파, 미래파, 초현실주의를 통틀어서 이른다 고한다.</p> <p>[출처]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패션이 뭐예요 ? 작성자 파니</p>